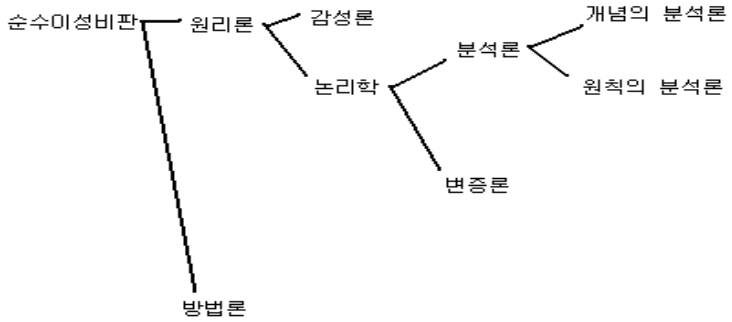
제3강 감성론

◆감성론과 직관
(1교시)
※학습목표: 칸트 사고체계에서 감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.

▲감성론과 논리학
-칸트는 감성론과 논리학을 구분한다. 『순수이성비판』도 크게 감성론과 논리학(개념논리학, 사유론, 인식론)으로 되어있다.
-감성론은 칸트가 영국경험론을 잇고 있음을 뜻하며, 논리학은 경험론을 넘어서 경험의 형태form을 부여하는 것이다.
-논리학은 분석론과 변증론으로 나뉜다. 분석론은 올바른 사유(합법적 추론)를 말하는 것으로 진리론이라 하겠다. 반면 변증론은 잘못된 사유(정당성 없는 사변)을 말하는 것으로 오류론이다.
-분석론은 개념의 분석론과 원칙의 분석론으로 나뉜다. (개념이 종합되면 판단이 된다.)

*참고사항



-라이프니치의 경우 감성론이 필요하지 않다. 필요하더라도 논리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.

▲직관과 감성
-칸트에게 직관anschanung은 개념이 매개되지 않은 인식이다. 즉 판단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인식이다. (판단에는 이미 개념적 수준이 들어가있다.)
-인간은 사물을 직관함으로 직관의 능력이 있다. 이 직관능력이 감성Sinnlichkeit이다. 촉발함으로써 사물을 직관하는데, 이렇게 사물로 하여금 촉발할 수 있는 능력이 감성이다.

*참고사항
장횡거(張橫渠), 1020~1077, 북송의 중기학자.
-장횡거는 우주가 기(氣)로 되어 있는데, 아직까지 분화되지 않은 근본실체로서의 기를 태

www.artnstudy.com

허라고 한다. 태허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차별도 주객도 없다. 그러나 이 태허가 분화되면 주체와 개체가 나뉜다. 주객이 나뉘었다는 것은 사물이 원초적 기의 상태에서 나와 분화가 되었다는 것이다. 그리고 이때 분화되어 나올 때의 경계선이 감(感)이다.
Sinnlichkeit를 감성으로 번역하는데, 촉발됨으로써 감한다는 것이 그 존재의 중요한 성격이고, 그래서 감성이라 한다.

▲칸트의 감성
-칸트에게 감성자체는 맹목적인 생리학적(물리적) 과정이다. 감성(직관)에 사유(Begiff·graifen)가 들어가야만 인식이 성립한다.
-칸트에게는 인간의 사유가 감성과 오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. 그런데 여기서 감성은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(『순수이성비판』에서도 중요하지만 적게 다룬다). 감성이 없다면 칸트가 비판하는 사변적 형이상학이 된다. 그러나 이성이 감성 이후에 더 많은 작용을 한다.

*참고사항
-현대철학자들은 감성차원에 이미 상당히 많은 것이 씨앗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. 그래서 그 씨앗이 어떤 개념이나 판단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. 즉 감성의 역할을 보다 크게 본다.

메를로-퐁티
Maurice Merleau-Ponty, 1908.3.14~1961.5.5 프랑스 철학자

▲감성과 오성이 차이
-사물의 인식에는 직관과 개념(판단)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.
-직관과 개념(판단)은 대비되는 말로써 인식할 때 모두 작동해야 하지만, 능동적 역할을 하는 것은 개념(판단)이다.
-직관에 해당하는 능력이 감성(감성론)이고, 판단하는 능력이 오성(논리학)이다.

▲인식질료와 인식형식
-인식에는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이 있다. 인식질료(내용)는 일종의 data다. 반면 이 인식질료를 구성(종합)하는 것은 형식form이다.
-인식진료는 『순수이성비판』의 관심이 아니다. 칸트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정신이 어떤 형

www.artnstudy.com

식을 가지고 있느냐다. 즉 어떤 형식을 가지고 질료를 지금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지 밝히려는 것이다. 결국 선험철학은 그 형식을 밝히는 작업이다.

www.artnstudy.com

◆감성의 형식
(2교시)
※학습목표: 칸트가 말하는 감성의 형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.

▲감성의 형식
-크게 나누었을 때, 감성은 인식질료를 주는 것이고, 오성은 인식형식을 주는 것이다. 즉 감성은 내용이고 오성은 그 내용을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. 그러나 감성은 크게 보면 인식의 질료이지만, 그 안에도 이미 형식이 있다. 따라서 감성을 단순한 질료로만 보아선 안 된다.
-감성자체도 이미 시간과 공간이란 틀이 있어서 감성을 통해 직관할 때 우선 일차로 이 틀이 작용을 한다. 즉 요성의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지관 그 자체에 형식이 들어간다. 그래서 오성의 형식과 감성의 형식이 따로 있다.
-감성의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다. 사물을 지관(지각)할 때 이미 시공간적 좌표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. 그래서 감성론이 바로 공간론과 시간론이 된다.
-그런데 칸트는 시공간론도 자신의 인식론적 사유구도에서 전개한다.

▲시공간의 위치
「그러면 공간과 시간이란 무엇인가? 그것들은 현실로 존재하는 것[실체]인가? 그것들은 사물의 한갓 규정[속성]이거나 사물들의 관계일 뿐이로되, 직관되지는 않는 물자체에도 속하는 규정 혹은 관계일 것인가? 그렇지 않고 공간과 시간은 오직 직관작용의 형식에만 속하고, 따라서 인간 심성의 주관적 성질일 뿐이라서 이런 성질 없이는 [어느] 공간이니 [어느] 시간이니 하는 객어가 사물에 도무지 부여될 수 없는 것인가? 이런 문제들을 천명하고자 우리는 「공간」관념을 규명하려고 한다.」
-시공간이 실체, 속성, 관계, 주체의 형식이냐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.
-칸트는 시공간은 인식주체의 감성의 선험적인 형식이라 본다. 시공간은 인식주체가 작동시키는 하나의 능력(형식)이다. 감정자체가 그 좌표로서 시공간을 갖는 것이다.
-시공간이란 형식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.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순수직관의 형식이다.

*참고사항
-시공간에 대한 다른 의견
실체라는 의견(뉴턴): 시공간이란 거대한 그릇으로 그 안에 물체들이 들어있다. 그래서 시공간은 물체보다 어느 면에서 더 근본적 실체다.
속성이라는 의견(아리스토텔레스): 대부분 서양철학의 견해다. 실체가 우리에게 차이들로써 나타나는 것이 실체의 속성이다. 어떤 실체가 인식주체에게 여러 가지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 속성(성질)이다.
관계라는 의견(라이프니치): 시공간은 사물들이 존재함으로써 거기에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다. 라이프니치는 공간은 공존의 형식order of coexistence이라 하며, 시간을 계기의 형식order succession이하 보았다.

*참고사항

www.artnstudy.com

Isaac Newton, 1642.12.25~1727.3.20 영국의 물리학자

Gottfried Wilhelm von Leibniz, 1646.7.1~1716.11.14 독일의 철학자

www.artnstudy.com